

남동발전, 마곡 집단에너지 본격화 친환경 열병합으로 난방 안정성 높여

서울 서남권 난방난 해소사업 추진
사업비 7000억 규모 7만 세대 공급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 기대
주거 개발 뒷받침 인프라 구축

한국남동발전이 장기간 표류해온 서울 서남권 지역난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마곡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열공급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공동개발협약·JDA)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서남권 일대에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집단에너지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7000억원 규모로, 전기 285MW, 열 190Gcal/h급 친환경 열병합발전(CHP) 설비가 들어선다. 완공시 마곡·강서 지역 약 7만 세대에 안정적인 열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남권은 마곡지구 개발과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도시 재생사업이 잇따르며 인구 유입이 급증해왔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지역난방 공급 시설 구축은 지연되면서 겨울철 난방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집단에너지시설 구축으로 난방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서남권 재개발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안정



마곡도시개발지구 전경.

/남동발전

적인 난방 인프라는 주거지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서남권 주거 환경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동발전은 기존 열전용보일러(PLB) 중심의 열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고효율 친환경 열병합설비(CHP)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대폭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생산 효율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는 지역난방 요금 인하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남동발전은 경쟁력 있는 요금 체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남동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시설 건설과 운영을

주도한다. 분당·안산복합발전소 등에서 축적한 열병합발전 운영 경험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급증하는 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열전용보일러(PLB)를 우선 준공해, 입주 초기 난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2031년 적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강기운 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남권역을 서울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행복 인프라’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에너지공단, ZEB 재생에너지 활용범위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대지 외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원격발전·PPA 조달 방식 첫 도입
고층·대형 건축물 ZEB 참여 확대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재생에너지 활용 범위를 대지 외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원격 발전설비나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한계가 있는 대형·고층 건축물로,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참여 건축물은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 방식으로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한 뒤 부족분에 한해 대지 외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단은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대체 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와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업 대

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 노력과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 방식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큰 상징적 사업지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막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 선정도 가능하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행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녹색건축센터 운영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업 R&D 2348억 투입

신규 과제 12개, 456억 규모 지원

정부가 올해 농업부문 연구개발(R&D) 투자 관련해 AX(인공지능 전환), 첨단바이오, 기후변화대응, 푸드테크 등에 초점을 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주요 R&D 사업에 전년 대비 16.9% 증가한 총 234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중 신규사업 예산 287억원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 456억원 규모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투자 분야는 ▲그린바이오 소재·반려동물 헬스케어 산업화 등 생명자원 핵심 기술 혁신(335억원) ▲농업 로봇·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농업 기술 선점(510억원) ▲미래식품 핵심 소재 확보 등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389억원) ▲기후위기 및 신·변종 질병·재해 대응 기술개발(732억원) ▲기술사업화 촉진·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기반 확보

(382억 원) 등 5대 분야이다.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2026년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지원 규모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한다. 신규 과제는 5일 주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공고가 진행되며, 2~3월 선정 평가를 거쳐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협업 산업화 기술개발’, ‘농생명자원 기반 필수약품 원료 공급망 대응 기술개발’,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극복 기술개발’, ‘농업·농촌 국민체감 AX 기술개발’ 등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시해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AI 대전환, 첨단바이오 육성, 기후대응·탄소중립 기술, 푸드테크 고도화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확보한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신속히 상용화함으로써 국민들도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소한 맞아 편의점전용 홍삼제품 선택

체온 유지·혈액 순환 도움

농협이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한’(올해 1월5일)을 맞아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삼 제품을 추천했다. 홍삼은 체온 유지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4일 농협홍삼에 따르면 ‘통째로 갈아 넣은 진홍삼스틱’에는 진세노사이드 6mg이 함유돼 있다. 추운 겨울철 원활한 혈액 흐름을 돕고 신체 활력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홍삼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전체식 방식을 적용해 뿌리와 인삼열매(진생베리)를 함께 담아 냈다. 정제수를 섞지 않아 홍삼 농축액의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식이란 곡식이나 채소 등 식품을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먹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편의점을 즐겨 찾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요 편의점 3사(GS25, CU, 세븐일레븐)에 멀티비타G 홍삼샷, 잠잠 등의 전용 제품을 출시했다.

‘멀티비타G 홍삼샷’은 물 없이도 ▲



멀티비타G 홍삼샷.

/농협

비타민 ▲미네랄 ▲홍삼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어 일상 속 편리함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옥영석 농협홍삼 대표이사는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 면역력 관리와 피로 회복을 위해 홍삼을 추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홍삼의 맛과 영양을 담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소비자들께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야나두’ 장학금 효과·실적 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완강률·지급인원 왜곡 판단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 판매업체 야나두가 자사 장학금 제도의 효과와 지급 실적을 과장·왜곡해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및 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

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강의를 끝까지 듣는 비율)’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완강률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니라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였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이러한 전제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종=한용수 기자